축 사

퇴옹당 성철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이렇게 성대하게 마련되니,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스님은 당대의 큰스님들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통해 승가의 본분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의제와 복식 등, 우리 종단의 현재를 이끌어낸 주역이십니다.

장좌불와와 동구불출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철저한 수행을 통해 수행자의 길을 보여주셨고, 많은 불자들에게는 삼천배와 참회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불교사상의 심오함을 불자를 넘어 온 국민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아름다운 한글 법어를 통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렇듯 성철 큰스님께서서는 우리 종단의 종정을 지낸 불교계의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현

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후학들이 할 일은 20세기를 살다 가신 큰스님을 과거사에 머물게 하지 않고,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전하여 현재와 미래에까지 살아계시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에 매진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성취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있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누구나 공감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종단도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통해 큰스님의 평생의 정진 일념과 다르지 않게 실천하고 불교의 미래를 밝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옹당 성철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종도와 함께 크게 축하드립니다.

불기2556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